

리수광의 문학비평에 제기된 진보적인 문예학적견해

김 세 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과문학에 대한 평가와 처리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172페이지)

우리 나라에서 실학과문학은 200여년간 진보적문학의 한 갈래를 이루며 발전하여왔다. 실학과문학의 형성발전은 부패몰락해가는 조선봉건왕조에 대한 비판적안목과 창작적자질을 지닌 진보적량반문인들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리수광(호는 지봉, 자는 유경 1563—1628)은 16세기말~17세기초에 활동한 초기실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실학과문학의 발생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그는 당시 유학자들속에서 성행하던 편견적이고 고루한 독경주의적학풍을 배격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현상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실학적학풍을 내세웠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각 방면에 걸쳐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사구시적인 문예학적견해를 담은 문학비평유산들을 적지 않게 남기였다.

그의 문학비평이 실려있는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지봉류설》(20권)과 《지봉집》(34권)을 들수 있다.

리수광의 문학비평에서 제기된 문예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창작에서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모방을 배격하고 민족적인것을 내세우며 당대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이다.

리수광은 문학비평을 통하여 창작에서 남의것을 덮어놓고 답습하려는 모방주의적경향을 반대하고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지난 시기 모방과 답습을 반대할데 대한 문제는 비평가들속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논의되여왔다.

리수광은 력대 비평가들의 견해를 심화시켜 당시 문학실태에서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 옛날것에 대한 기계적인 답습을 배격하였다.

리수광은 문학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에 맞게 변화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옛날것을 그대로 따르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대개 문장이란 시대를 따라 성하고 쇠하여 불과 이삼백년간에 형식이 변하고 기백과 격식도 점차 미약해지기를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 하고 강물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서 다시 돌이킬수 없이 되는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나라와 당나라에 대하여 그때의 시와 글만 가지고서 옛사람들을 논한다면 구태여 해설을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될것이다.》(《지봉류설》8권 문장부1)라고 하면서 문학이 시대성을 띤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시기 보수적인 량반문인들은 《고문》을 숭상하면서 옛날작품이나 다른 나라의 력사적현실에서 작품의 소재를 받아들여 창작하였다.

리수광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근세에는 이 폐단이 더욱 심하여 시 한편에서 고사를 인용한것이 태반이니 이는 옛날사람들의 어구를 표절하는것과 큰 차이가 없다.》(《지봉

류설》9권 문장부2, 시)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작품창작에서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현상을 강하게 배격하였다.

그는 《구름에 대해 읊은 리승휴의 이런 시가 있다. 〈한조각 구름덩이 진창에서 생겨나/ 어느덧 사방으로 흩어져 퍼지네/ 단비되어 마른 식물 살리는가 하였더니/ 부질없이 중천에 떠서 해와 달만 가리우네〉 이 시를 리제현은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는 송나라 시에 있는 〈단비가 되지 않고 하늘만 부질없이 가리우네〉의 뜻을 그대로 썼으니 칭찬할바가 못될것 같다.》(《지봉류설》13권 문장부 6, 동시)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모방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리수광은 문학작품창작에서 현상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유교성리학자들은 문학이 현실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을 반대하면서 《문(文)》은 《도(道)》를 반영하여야 하며 《문》과 《도》는 일치하다는 견해를 제창하였다.

문학이 현실이 아니라 유교성리학, 도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도문일치》의 견해가 만연하던 당시에 현실을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그의 미학적견해는 매우 진보적이며 의의있는 견해인것이다.

그에 의하면 《물의 소리는 곧 시의 소리요, 산의 색은 곧 시의 색이요, 태양과 달의 광채는 곧 시의 광채요, 바람과 구름의 변태는 곧 시의 변태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사실과 사물들이 시로 되지 않는것이 없다.》(《지봉집》21권 잡저)라고 하였다.

그는 여기서 물과 산, 태양과 달, 바람과 구름 등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현상들이 곧 문장의 반영대상이라는것 즉 문장은 자연과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창작에서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모방을 반대하고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부터 리수광은 민족문학유산을 적극 내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특히 가사를 비롯한 우리 나라 민족시가에 적지 않은 관심을 돌리었다.

그는 《근세에 송순, 정철의 작품이 가장 좋은것으로 하여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는것이 이에 불과하니 슬픈 일이다. 장가로서는 〈감군은〉, 〈한림별곡〉, 〈어부사〉가 가장 오랜것이고 근세에 〈퇴계가〉, 〈남명가〉, 송순의 〈면앙정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숙미인곡〉, 〈장진주사〉 등이 세상에 퍼지고있다. 이외에도 〈수월정가〉, 〈력대가〉, 〈관산별곡〉, 〈고별리곡〉, 〈남정가〉 등 종류가 매우 많다.》(《지봉류설》14권 문장부7, 가사)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문시가형식의 하나인 가사에 대하여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당시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사대부들이 가사를 비롯한 민족시가문학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데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처럼 리수광은 문학비평을 통하여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져 아무런 현실적의의도 없는 다른 나라의 문학만을 절대시할것이 아니라 민족문학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리수광의 문학비평에서 제기된 문예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학창작의 생리에 맞게 현실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펼칠데 대한 문제이다.

리수광은 시라는것은 성정을 읊는것이라고 하면서 성정을 떠난 시들은 아무리 품을 들여 지어도 그것은 한가하고 누긋한 언어가 되어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시는 성정을 읊을뿐이다. 시라는것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담에 불과하면 실용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지봉집》 28권 병축잡기), 또한 《섭몽득은 말하기를 <시는 원래 사물과 접촉하여 거기에 흥미를 붙이고 자기의 성정을 읊는것인데 세상에서는 흔히들 꾸며내고 수식하기에 급급하기때문에 말마디는 비록 묘하다 하여도 답답하여 맛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의사와는 전혀 련관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지봉류설》 9권 문장부2, 시)라고 하면서 문학을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나라오는 성정의 표현으로 보았다.

여기서 성정은 자연스러운 정서를 의미한다.

그는 《글짓는것은 조화와 같으니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반드시 잘되고 손에서 이루어진것은 반드시 잘못 지어질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마음에서 글을 짓는 사람이 적으니 글이 잘 지어지지 못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지봉류설》 8권 문장부1, 문)고 하였다. 한마디로 시는 사물에 접촉하여 생기는 감흥이 성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것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반드시 현실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는 글은 자연스러운것이 좋고 기교를 꾸미지 말아야 하며 이 정도에 도달하면 힘을 쓸데가 없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문장짓는자는 이 말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지봉류설》 8권 문장부1, 문)라고 하였으며 《바람이 물우를 지나가는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경지에 이르러 바라지 않았지만 저도모르는 사이에 맞이하게 되는》(《지봉류설》 9권 문장부2, 시평) 경지에 이르는것이 가장 잘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함축성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것을 《상》으로, 보기 싫도록 꾸며 맞춘것을 《하》로 여기었다.

현실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형상할데 대한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견해이다.

문학창작에서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는 일찍부터 진보적문인들의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이 문제는 이미 고려시기에 리인로와 리규보, 최자, 리제현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도 서거정, 성현, 김시습, 어숙권, 류몽인 등 진보적문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하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보수적인 량반문인들은 의연히 현실도피의 은일시가와 현실을 미화분식하는 형식주의적인 창작을 극구 찬양하면서 형식미만을 장려하였다.

리수광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문장을 아름답게 꾸며놓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뜻, 내용을 충실히 표현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일부 사람들의 시에는 뜻이 없는것으로 하여 아름답지 못하다.》(《지봉류설》 9권 문장부)라고 하면서 뜻-내용의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내용을 중시할데 대한 리수광의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이신위주》의 견해이다.

리수광은 선행시기의 진보적견해들을 보다 심화시켜 《내 생각에는 <신>이란 변화무쌍함을 이르는 말로서 뜻은 곧 기의 통솔자다. 이미 뜻이라 하였다면 기는 말할것이 없고

이미 신이라 하였다면 뜻은 말할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대하여 <문장은 신을 위주로 한다.>고 말한다.》(《지봉류설》 8권 문장부1, 문)라는 《이신위주》의 견해를 내놓았다.

리수광은 《신》을 《변화스러워 추측할수 없는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은 사물현상의 신묘한 리치를 의미한다.

그는 《기》의 통술자는 《뜻》이고 《뜻》의 통술자는 《신》이며 《신》은 문장을 이루는 모든것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내용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리수광은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을 불가분리의 통일성으로 보았으며 내용의 우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의 의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문장은 길든 짧든간에 자기가 말하려는 뜻을 다하면 그만...다듬지 않고 편마시키지 않으면 문장이 될수 없다. 허나 다듬다가 기를 상하지 않게 하며 편마시키다가 끝을 잃지 않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문장에서 귀중한것은 기와 끝》(《지봉류설》 9권 문장부)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뜻》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의미라고 볼수 있으며 《기》는 기백-시적열정, 《끝》은 격식-형식적인 측면을 넘두에 두었다고 볼수 있다. 즉 문학창작에서 《뜻》, 내용의 우위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형식의 의의를 무시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그가 문학작품을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작용과 지위, 의의를 강조한 비교적 진보적인 미학적견해라고 볼수 있다.

문학비평을 통하여 리수광은 이밖에도 시적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에 관한 문제, 문학작품의 감화력에 대한 문제, 작가들이 꾸준히 자신을 수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체험을 쌓을데 대한 문제, 산문과 평론에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예리론적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리수광의 문학비평에는 일련의 제한성도 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봉건유학자의 관점에서 본데로부터 봉건사회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그 모순의 원인이 봉건제도자체에 있다는것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지 못하였다.

그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 치중하면서 봉건제도의 부분적인 수정이나 약간의 변경만을 주장하였으며 악질관료들의 지나친 전횡과 수탈이 봉건왕권을 약화시킨다는 견해로부터 개별적인 량반통치배들을 비판하는데만 그치였다.

그러나 그의 문예학적견해들은 초기실학자들의 실사구시리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미학사상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학과문학을 비롯하여 진보적문학발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민족의 문학사를 더욱 체계화하여야 할것이다.